

#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

## 1. 기본정보

이름		학번	
파견국가	캐나다	파견도시	밴쿠버
파견대학	랑가라컬리지	기간	2018.8.5.(토) ~ 2018.8.25.(토)

## 2. 파견대학, 수업 및 Activity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파견대학 위치, 규모 및 시설,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.</p> <p>대학은 순천향대 규모보다 작았습니다. 교실과 건물 자체에 에어컨이 굉장히 세게 틀어져있어 모든 학생들이 추워했습니다. 전체적인 분위기는 선생님들과 소통 많은 친근한 분위기였습니다.</p>
수업	<p>수업내용, 수업방법, 분반여부, 강사, 과제,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.</p> <p>수업은 대체적으로 쉬웠습니다. 과제는 선생님마다 다르나 하루에 15분 내로 할 수 있었고, 따로 노트북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. 학교에서 하는 수업보다 견학이 훨씬 흥미로웠습니다. 제가 있었던 반은 일본인과 대만 학생들이 섞여있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.</p>
Activity	<p>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.</p> <p>- Activity 종류, 내용, 준비물, 추가비용 등</p> <p>휘슬러 갈 때에는 꼭 두꺼운 겹옷을 챙겨가세요. 카약킹 시에는 선글라스가 필수고, 옷이 약간 젖습니다.</p>

	<p>추가비용은 없습니다. 모든 활동에 물이 필요합니다.</p>
--	---

### 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현지 기후 및 유의점</p> <p>날씨는 8월 초에는 덥다가 점점 추워져 가을 날씨입니다. 얇은 겂옷과 두꺼운 겂옷을 챙겨야하나, 저 같은 경우는 두터운 겂옷은 현지에서 구매했습니다.</p>
안전	<p>현지 안전 상황</p> <p>Hastings 라는 다운타운에 있는 거리는 마약거리이나, 홈리스들의 터치는 없습니다. 늘 경찰이 거리에 있으니 안전합니다.</p>
숙소	<p>학교기숙사( ) 홈스테이( O ) 외부 숙소( ) 기타( )</p> <p>숙소 시설, 분위기, 규칙,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제 홈스테이 패밀리는 필리핀계로, 매우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. 홈스테이 패밀리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나, 영 아니다 싶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. 홈스테이 오피스는 그닥 친절하지 않아 바꾸고 싶어도 제대로 들어주는 경우가 없는데, 그 때에는 강력히 자신의 의사를 표출해야합니다. 이미 순천향대학교 측에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마땅한 대우를 해주는 홈스테이 집에 머물고 싶다고 분명하게 말할 것을 추천합니다.</p>
식사	<p>학교식당( ) 홈스테이 ( ) 외부식당 (O) 기타( )</p> <p>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홈스테이에서 저녁을 준비해주기 때문에 굳이 저녁을 밖에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. 하지만 저는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고싶어 거의 매일 사먹었습니다. 가격은 20-30불 대 입니다.</p>
교통	<p>통학방법, 시내교통 관련</p> <p>배정받은 홈스테이 하우스가 파견 학생 중 가장 가까워 걸어서 15분 이었습니다. 하지만 개인별로 달라 버스나 스카이트레인을 환승해서 와야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.</p>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 원

※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.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, 여행자보험	1,858,700	출국 전 사전 납부
쇼핑 및 개인 외부 활동 입장료	1,000,000	옷, 향수, 화장품 등
외식비	400,000	
합계	3,500,000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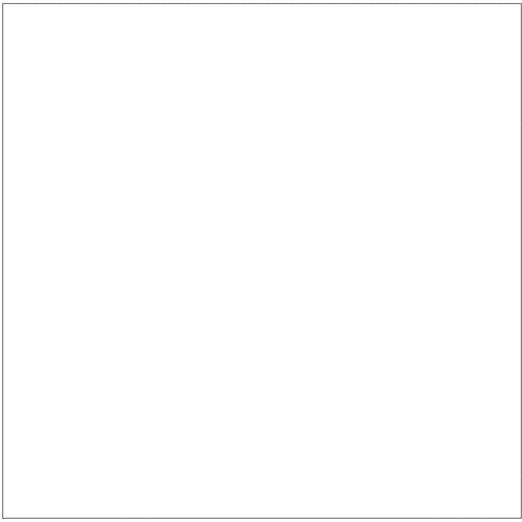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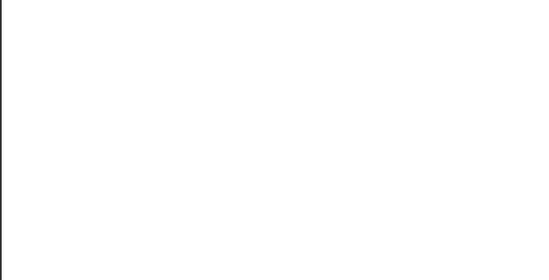
3주간 방문할 만한 장소  
 린캐년 서스펜션 브릿지(캐필라노는 40불, 린캐년은 무료입니다). 빅토리아 아일랜드(국회 의사당, 부차드가든). 다운타운(개스타운이 메이플 시럽은 가장 저렴함). 킷실라노비치. 딥코브  
 맥아더글렌 (아울렛으로 옷이 굉장히 저렴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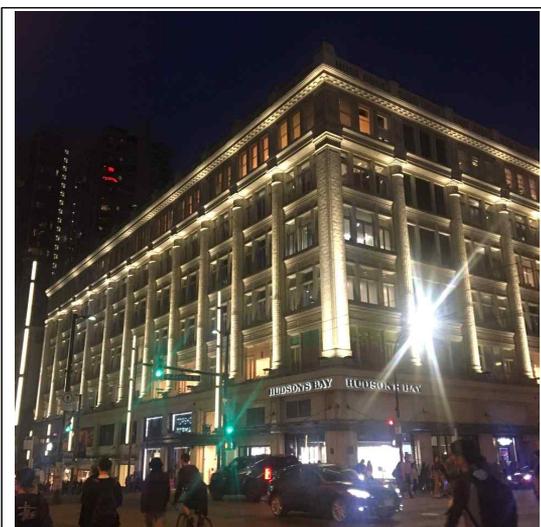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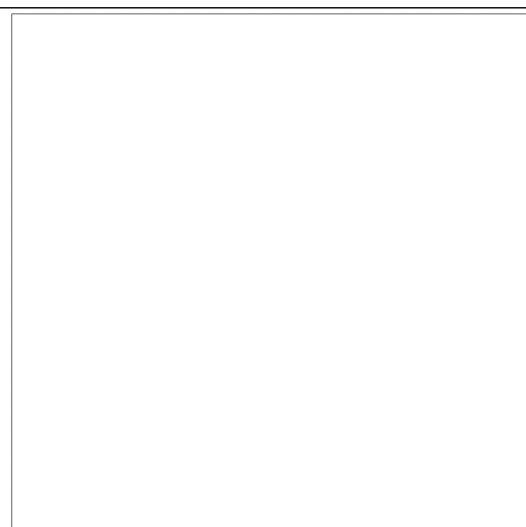
모두 만족스러웠지만 항공료가 왜 그리 비싼지 모르겠습니다. 스카이스캐너로 아무리 둘러봐도 학교에 지불한 것 보다는 저렴했습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	
<p>린캐년</p>	<p>킷실라노 비치</p>
	
<p>휘슬러</p>	<p>다운타운 카페</p>
	



다운타운



퀸 엘리자베스 공원